

SPORTS 광주FC, 포항스틸러스 꺾고 선두권 추격한다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지난 3월 하나은행 K리그1 2025 4라운드 포항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광주FC 조성권이 득점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모습.



18일 오후 4시 30분 포항스틸야드서 원정전
승점 19 리그 6위…“순위 상승 최우선 집중”

프로축구 광주FC가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승점 사냥에 나선다. 광주FC는 18일 오후 4시 30분 포항스틸야드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14라운드 포항과의 원정 경기를 갖는다. 지난 11일 전북과의 경기에서 0-1로 패배한 광주는 5승 4무 4패 승점 19 리그 6위로 하락했다. 이날 경기 전 기준 5위를 기록했던 광주는 2위 전북과 3위 울산을 맹렬하게 추격하며 최상위권 진입을 노렸지만, 다시 주춤하는 모양새가 됐다. 결국 중하위권에 추락한 광주는 이번 포항전에서 승리를 따내 다시 선두권을 추격하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지난 3월 22일 4라운드 경기를 통해 포항과 마주쳤다. 당시 광주는 홈에서 주도권을 전채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다. 다만 각종 불운과 악재가 겹친 끝에 후반 추가 시간 골을 허용하며 2-3으로 패했다. 유덕 이정호 감독과 선수단이 두고두고 아쉬움을 내비친 경기였다. 이에 광주는 이번 포항전에서 완벽한 설욕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동기부여도 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광주와 포항은 나란히 13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5승 4무 4패로 승점 19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은 승점 20점의 고지를 넘어서며 선두 그룹

을 맹렬하게 쫓을 수 있다. 반면 패배하는 팀의 경우 바짝 뒤따라오는 중하위권 그룹에 추격을 허용하게 된다.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경기에서 광주는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양 팀 모두 주중 코리아컵 일정을 치렀다. 결과는 상반됐다. 광주는 수원FC를 잡고 8강 진출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포항은 김포FC전에서 패하며 고배를 마셨다. 더욱이 광주는 해당 경기서 리그 일정을 고려해 과감한 로테이션을 택했다. 이정호 감독은 직전 전북대와의 경기를 소화한 11명의 선수를 모두 선발 명단에서 제외하며 체력 안배에 성공했다. 포항의 경우 리그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주축 선수들이 대거 코리아컵 경기에 출전했다. 분위기와 체력 두 가지 측면에서 확실하게 앞서 있는 광주다. 이정호 감독은 “5월에만 7경기를 치르는 일정이다. 리그에서 선발로 뛴 선수들을 코리아컵 선발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포항과의 경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며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일 모두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리그에서 성적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 포항을 꺾고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승부차기 접전’ 광주FC, 코리아컵 8강 진출

16강전서 수원FC 제압…골키퍼 노희동, 2선방 빛나

프로축구 광주FC가 수원을 꺾고 코리아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광주FC는 1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4-3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광주는 2년 연속 코리아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지난해 광주는 4강에서 울산HD에 0-1로 패배한 바 있다. 광주는 이날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박인혁과 신창무가 최전방에 이름을 올렸다. 중원은 하승운, 홍용준, 주세중, 가브리엘을 배치했고 후방은 김한길, 안영국, 진시우, 권성윤이 맡았다. 골키퍼 장갑은 노희동이 썼다. 광주는 전반 4분 홍용준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을 날렸으나 상대 골키퍼에게 가로막혔다. 이어 양 팀은 전반전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지만, 서로 골을 만들어나지 못했다. 전반 45분에는 하승운이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했고, 황재환이 대신 투입됐다. 전반전은 0-0으로 끝이 났다. 광주는 후반 29분 선제골을 터트렸다. 문민서가 상대 진영 인근에서 흘러나온 볼을 과감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상대 골문을 갈랐다. 하지만 후반 39분 상대 김도윤이 김주엽의 크로스를 받아 동점골을 터트렸다. 경기는 동점 상황에서 연장전으로 이어졌고, 양



팀은 끝내 승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결국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첫 번째 키커로 나선 문민서는 골문 왼쪽을 뚫어냈다. 상대도 골대 우측 상단을 갈라 1-1이 됐다. 두 번째 주자 황재환은 상대 골키퍼를 뚫지 못했지만, 노희동 역시 상대 슈팅을 막아냈다. 양 팀 3·4번 키커는 모두 골을 터트렸다. 광주는 마지막 키커로 가브리엘을 내보냈고, 가브리엘은 그대로 골을 만들어냈다. 이후 노희동이 상대 아반다의 공을 몸으로 막아내면서 경기는 4-3 광주의 승리로 끝이 났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여대 배구팀



조선대 배구팀

조선대·광주여대 배구, 전국체전 광주대표 선발

남대부·여대부 예선서 호남대 제압

조선대학교와 광주여자대학교 배구가 전국체전 광주대표로 선발됐다. 15일 광주시체육회와 광주시배구협회에 따르면 조선대는 최근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남자대학부 배구 광주 예선 대회에서 호남대를 세트스코어 3-0(25-20 25-13 25-16)으로 제압했다.

조선대는 이날 선수 전원이 고른 활약을 보인 끝에 패기로 맞선 호남대에 완승을 거뒀다. 이어 열린 여자 대학·일반부 예선에서는 광주여대가 호남대를 세트스코어 3-0(25-13 25-15 25-14)으로 제압했다. 단판 승부인 예선대회에서 나란히 승리한 조선대와 광주여대는 전국체전에서 광주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올해 106회째를 맞은 전국체전은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시 일원에서 열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 세 번째)와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오른쪽 두 번째) 등 관계자들이 '제20회 전남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참여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막…영·호남 ‘화합의 장’

오늘까지 영광군 일원서 열전

게이트볼 등 9개 종목 2300명

경북생활체육교류단 80명 합류

전남 어르신들이 체육을 통해 하나가 되는 특별한 축제가 ‘전년의 빛’ 영광에서 막을 올렸다. 15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제20회 전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이 이날부터 16일까지 2일간 영광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축전은 전남도와 영광군,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후원했다. 전남도체육회가 주최, 전남생활체육대축전조직위원회 및 종목별 도 단체가 주관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약 2300여 명의 어르신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해 건강한 경쟁과 지역 간 화합의 장을 이루는 동시에, 인생의 제2막을 활기차게 여는 기회의 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 종목은 게이트볼(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그라운드골프(스포티움 보조경기장), 배드민턴(스포티움 보조체육관), 생활체조(스포티움 실내체육관), 소프트테니스(스포티움 테니스장), 산악(불갑산), 궁도(육일장), 탁구(해룡), 파크골프(한빛파크골프장) 등 총 9개 종목으로 영광군 전역의 체육시설에서 분산 개최된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영광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각 시·군 선수단과 주요 내빈이 참석해 성대한 분위기 속에 대회의 시작을 함께했다. 개회식에서는 공식 의식행사와 함께 건강상 및 특별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종목별 최고령 어르신에게는 건강한 체육 활동을 격려하는 의미로 건강상(전남도지사상)이 수여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게이트볼 박필훈(90·신안), 궁도 임용남(84·나주), 그라운드골프 이상용(89·무안), 배드민턴 박무길(78·구례), 산악 전영만(77·보성), 소프트테니스 김재곤(89·나주), 체조 황안진(89·완도), 탁구 임동미자(83·나주), 파크골프 김승운(81·보성) 등 9명에게 건강상을 수여했다. 이어 개최지 최고령 참가 어르신에게 수여되는 건강상(도의장상)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을 대신해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그라운드골프 이용신씨(86·영광)에게 대리 수여했다. 이 외에도 전남도체육회장 특별상이 우호 교

류와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그라운드골프 조용화(78), 탁구 김순애(76)씨에게 각각 수여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앞선 어르신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건강한 노후와 지역 간 화합의 기틀을 다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활기찬 여가활동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대축전을 통해 어르신들이 쌓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따뜻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경상북도 생활체육교류단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을 단장으로 한 교류단은 6개 종목에 80명의 선수단을 구성해 참가했다. 이 교류는 지난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영·호남 간 생활체육 협력의 일환으로, 양 지역의 상호 이해와 화합을 바탕으로 우애를 다지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